

'강진품애 온 군민' 회원 수 1만명 돌파

강진군 운영 온라인 군민 제도 2월 오픈 3개월만에 성과 전체 인구 3분의 1 회원 등록

강진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군민 제도 '강진품애 온 군민' 이 지난 15일 기준 누적 회원 수 1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강진군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올해 2월 정식 오픈 이후 불과 3개월여 만에 거둔 성과이다. '강진품애 온 군민'은 강진과 인연을 맺은 출향민, 관광객, 전지훈련 선수단 등 누구나 가입 가능한 온라인 군민 제도이다.

회원 가입 시 5000 마일리지 지급, 강진 관광지 무료입장 및 체험시설 할인, 적립 마일리지를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해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강진군은 강진청자축제, 전라병영성축제 등 현장 중심 홍보와 카카오톡 채널, SNS 광고 등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며 단기간에 제도의 인지도를 넓혀왔다. 특히 지난 청자축제 기간 10일 동안 2423명이 신규 가입하는 등 축제를 활용한 현장 홍보가 제도 확산에 핵심 동력으로 작용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명에 사이버 군민을 모집해 눈길을 끌었다. 강진품애 온 군민은 강진군이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기반 생활인구 정책으로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이 다른 지역 거주자로 나타나며

강진과의 '지속 가능한 관계' 구축에 이바지하고 있다. 강진군은 향후 하맥축제, 갈대축제 등 주요 행사에서도 홍보부스를 운영해 가입자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혜택 설계 및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품애 온 군민"은 강진과 외부인을 연결하는 생활인구 정책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정식 오픈 3개월 만에 회원 수 1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군민과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만든 값진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혜택과 참여 기회를 통해 강진과 인연 맺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화순경찰, 어린이 지킴이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화순경찰은 지난 16일 경찰서 적벽마루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전을 위한 2025년 녹색어머니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봉사활동 유공 회원에 대한 경찰서장, 교육장 감사장과 신규 임원진 위촉장을 수여했다. 화순녹색어머니회는 등하굣길 교통봉사뿐만 아니라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안전교육, 어린이와

함께하는 교통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장승명 화순경찰서장은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전반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녹색어머니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장성군, 산림자원 효율적 관리·활용 '나무은행' 운영 성과

기증 받은 나무 공공용지 식재

전국 최대 편백숲을 보유한 장성군이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장성군은 최근 지역기업 (주)케이제이플러스가 사업장을 황평면 월평리로 이전하면서 부지에 자라고 있던 배롱나무 50여 주를 군에 기증해 관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이 나무를 삼서면 금산리 소재 '나무은행'에 옮겨 심었다. 나무은행은 개인 기증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베어질 위기에 놓인 나무를 군유지에 이식했다가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007년부터 금산리 일원 약 8000㎡ 군유지에 '나무은행'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 현재 이팝나무 등 7종 500여 주가 식재돼 있다. 기증된 수목은 공원, 도시숲 등 공공용지에 식재해 군민과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할 예정이다. 장성군은 앞서 과거 마을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온 은행나무를 벌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옮겨 심어 화제를 모았다. 지난 2021년에는 동화면 면소재지 은행나무 69주를 황미르랜드 인근으로, 2023년에는 성산 은행나무 100여 주를 소방서 옆



장성군 나무은행에서 관리 중인 이팝나무.

장성전변에 이식해 장성읍 주민들의 7년 숙원을 해결하기도 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수목을

관리·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녹지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자동차극장 단체관람 가족관람관 운영

함평군은 지역 어르신과 소외계층도 영화 관람을 즐길 수 있도록 함평자동차극장에서 가족관람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극장은 차량 안에서 영화를 관람하지만, 가족관람관은 가족단위 관람객과 소모임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가족관람관은 무대도열차 관람관과 기존 매점을 리모텔링해 2곳을 운영한다. 관마다 4-6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희망 3만 원이다. 전화예약을 하거나 또는 당일 현장 발권을 통해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예매는 불가능하다. 함평군 관계자는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족관람관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자동차가



함평자동차극장 내 가족관람관.

없는 분들도 불편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나주 남평 강변도로 조기 개통... 1.2km 확·포장

한 달 앞당겨 완공 완전 개통

나주시 남평읍에서 광주·화순 방면을 잇는 주요 통행로인 강변도로가 더 넓고 시원하게 뚫렸다. 나주시는 남평읍 강변도시 아파트 주민들의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남평 강변도로 확·포장 공사'를 한 달 앞당겨 마치고 전면 개통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도로는 총공사비 13억2000만원을 들여 남평 한우촌에서 남평 양우내안에 2차아파트까지 이어

진 제방도로를 길이 1.2km, 폭 12m로 넓히고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남평강변 도시개발사업 준공이후 교통량 증가로 인해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이 높아져서다. 이에 나주시는 도로 확·포장을 비롯해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대 설치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과 시민 안전성을 확보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남평 강변도로 확포장과 조기 개통을 통해 주민 편의와 통행 안전은 물론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



한 달 앞당겨 개통한 나주 남평 강변도로.

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흥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성료

장흥군이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토요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이나 비용 문제로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우리동네 마을세무사가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장흥군은 2022년부터 전통시장을 찾아 영세상인들의 세금 고충을 듣고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금 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방양원 마을세무사가 토요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했다.

방 세무사는 시장상인과 주민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자경농민 양도세 비과세, 절세 방안 등 세금 고민을 직접 듣고 상담해 주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병행하였다. 이날 상담을 받은 많은 상인들은 그동안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였던 세금 공금증을 해결하게 됐다고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향후에도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복지회관 등을 찾아가 세무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지원해 주민들의 납세 편의를 돕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이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5년 5월호

2025년 4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2025 광주 방문의 해

무등산에 올랐다

- 무등산이 낳고 키운 생명과 문화
- 무등길 위에서 무등의 정신 이어갑니다
- 생명의 춤, 무등산의 봄꽃
- 무등산의 풍경과 서사를 담다: 사진작가 임채욱 '무등산'전

맛과 함께

순천 여행

국가정원

흑두루미 시간여행

화제의 전시

2025 하정웅 컬렉션 기획전

'단색학: 무한과 유한'전

예향 초대석

여성극극 1세대 배우, 발탁 명인

조영숙

"무대에선 눈으로 울어도 입으로는 웃겠다"

예향과 함께하는 남도투어

화사한 전라남도 정원의 봄

해외문화기행 @ '예술아지트'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

호남의 누정 @ 에필로그

꿈은 선비정신과 풍류를 마주한 시간

오동진의 '전지적 시네마 시점'

가장 위험한 것은 잘못된 확신, 연상호 '계시록'의 믿음